

■ 2018년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1차) 도서선정 심의총평(아동·청소년)

- 사업명 : 2018년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1차)(아동·청소년)
- 회의일시 : 2018. 11. 2(금) 10:00~16:00
- 회의장소 : 문학나눔 회의실

아동·청소년 분야의 도서선정 심의에는 시, 소설, 수필, 평론·희곡 분야와 달리, 작품 수월성, 문학 발전의 기여도, 파급효과 및 기대도 등 공통된 심의기준과 함께 아동문학의 각 장르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아동·청소년 부문은 동시, 동화, 그림책, 청소년소설 등 각기 다른 양식을 끌고루 안배해야 하는 장르 문제와 초등의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대상 독자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아동·청소년 도서는 총 612종이 접수되었고, 1차 심의에서 166종이 선정되었다. 2차 심의위원회는 그 2차 심의 대상도서 166종을 윤독하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83종의 도서를 결정하였다. 이때 동일한 조건의 동점 도서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접수 종수의 비율에 따른 장르별 안배 문제와 더불어 신인작가의 첫 발간 작품, 지역 소재 출판사, 전년도 미지원 출판사 등이 고려되었다. 특히 166종에 대한 2차 심의는 1차 심의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려 뽑은 종수라는 점을 존중하여 더욱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이번 아동·청소년 도서 심의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동시와 동화 부문보다 그림책과 청소년소설 부문이 더 돋보였다는 점이다. 동시 부문은 그림책과 동화 부문에 비해 접수 종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2차 심의 대상에 오른 동시집이 모두 22종이었다. 이들 동시집은 대체로 시적 형상화나 참신성이 떨어지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말놀이 성향으로 흐른 편이었다. 하지만 동시집 출간이 동화에 비해 훨씬 어려운 점뿐 아니라 전체 선정 종수의 장르별 비율을 감안할 때 2차 심의에 오른 종수의 약 50%가 선정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된다.

동화는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가장 많은 종수가 접수된 부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참신한 소재, 탄탄한 구성, 깊이 있는 주제, 독창성 등에서 아쉬움이 컸다. 그동안 수없이 다루어온 식상한 이야기들, 곧 이혼가정 아이들, 왕따 문제, 반려동물을 다룬 생활동화들이 너무 많은 탓이었다. 그런 속에서도 동화적 울림을 주는 차별화된 작품을 최선을 다해 선정하였다.

그림책은 접수 종수도 많았고 소재도 다양했다. 그림의 기법과 구성력이 뛰어나고 동화적 의미도 새로웠다. 전체적으로 외국 그림책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고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특히 그림으로 서사를 이끌어가는 그림 위주의 작품들이 늘어나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었다. 그만큼 그림책은 새로운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청소년소설 부문은 접수 중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저마다 다른 방식과 시각으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한 특성 있는 작품이 많았다.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바탕으로 한 작품에서부터 난민 문제, 5·18광주민주화, 제주도 4·3사건, 첫사랑에 대한 정념, 입양아 문제 등을 개성 있게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4차 혁명의 문제, S·F소설에 이르기까지 그 소재의 폭이 넓었고 우리 시대의 현안에 대해 밀도 있게 고민한 흔적이 잘 나타나 있었다.

이와 같이 이번 심의 도서들은 전반적으로 동시 부문보다 동화 부문에서, 또 전통적인 동화 문법에 충실한 동화보다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탄탄한 구성력으로 조망한 청소년소설과 다양한 기법을 시도한 그림책 부문에서 돋보였다. 또한 두 장르 분야에 젊은 작가군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한편으로 아동문학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심과 동심이 어우러지고 시적 형상화가 잘 이루어진 많은 동시집 출간과 문학적 성취를 이룬 동화가 다양하게 창작되기를 기대해본다.

2018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심의위원 일동